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 노대웅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4월 24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4월23일은 최초로 제정된 '세계 책의 날'이다. 이날을 맞이 보시 가운데 가장큰 보시인 법보시를 실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또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는 올해부터 봉축연등을 이웃에 보시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등 보시실천의 움직임이 활기를 띠고 있다. 경전속에 나타난 보시정신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보시

법시는 자타에 다 이익하니 능히 중생들로 하여금 삼계로부터 뛰어나게 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해심 보시심을 성취하게 한다. 〈금광명경〉

보시하는 힘을 수행해 완성하면, 이 보시하는 힘으로 인하여 삼불할 수 있게 된다. 〈광명경〉

보시가 보살의 정토다. 보살이 성불할 때, 온갖 것을 능히 베푼 중생이 그 나라에 태어난다. 〈유마경〉

만약 경전의 가르침과 세속의 분전을 보시하면 막대한 큰 지혜를 과보로 받게 되며, 의약을 보시하면 편안하게 공포를 떠나게 되며, 밝은 등을 보시하면 그 눈이 항상 밝아지며, 음악을 보시하면 그 목소리가 아리따와지며, 침구를 보시하면 편안하고 즐겁게 자게되며, 하인을 보시하면 시종이 항상 주위를 에워싸게 되며, 좋은 밥을 보시하면 창고가 가득 차게 된다. 〈육취윤회경〉

만약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보시할 재물이 없을 경우에는 남이 보시를 행할 때에 수희심을 일으켜야 한다. 수희하는 복보는 보시와 매한가지여서 다를 것이 없는 까닭이다. 이는 아주 행하기 쉬운 일이니, 누구라 불가능하랴? 〈인과경〉

간탐을 실행해서 큰 부를 얻는다면 것은 있을 수 없고, 보시를 실천해서 큰 부를 얻는 것은 있을 수 있다. 〈대집경〉

다섯가지 보물이 있어서 보살의 보시를 청정하게 만들어 주는바, 다섯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보시를 행하면서도 바램이 없음이요, 둘째는 보시하는 마음에 집착함이 없음이요, 셋째는 보시받는 사람에게 상을 일으키지 않음이요, 넷째는 보시에 대한 과보를 염두에 두지 않음이요, 다섯째는 받는 자로 하여금 보답함이 없게 함이니라. 〈보수보살보리행경〉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할 때는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며, 복전에 보시할 때는 기뻐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친우에게 보시할 때는 정진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무비한계경〉

보시란것은 큰 부의 문이 된다. 〈문수사리정율경〉

관련기사 2 · 12면

전자게시판 모뎀번호 ☎ 722-7504
15대 국회 불자당선자 인터뷰 3면
'세계 책의 날' 특집 2 · 12면
사법연수원 불자회 창립 15면
한 일 천태종 공식 교류 '첫발' 14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 1-0255243

유니세프 불교인클럽 | 이웃을 돕는 사람들 | 우리는 선우

"지구촌 기아돕기 나섰다"

의료 급식지원 · 기술교육 전개…사진전등 모금활동도

유니세프 불교인 클럽, 이웃을 돕는 사람들, 우리는 선우 등이 전세계 어린이들의 기아돕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지구촌 기아돕기 구호활동에 불교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 어린이들의 생존 보호 활동을 펼치는 국제연합아동기구(UNICEF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불교인클럽(회장 제원스님 길음복지관장)은 지난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첫사업으로 사랑의 걷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로 구성되는 유니세프 불교인클럽은 오는 28일 개최되는 사랑의 걷기대회와 빈곤퇴치 사진전, 사랑의 콘서트 등을 통해 모금활동을 전개,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한다.

불교인클럽은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등 불교국가를 중심으로 전세계 어린이들의 긴급구호와 교육, 질병예방 등의 활동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정불련 자비의 집도 오는 6월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는 어린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단체 '이웃을 돕는 사람들'을 발족한다.

'이웃을 돕는 사람들'의 추진위원들은 오는 7, 8월 동남아 불교국가들을 방문, 불우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실태와 환경, 구호방법을 조사한뒤 9월부터 의료지원, 현장무료급식 등 본격적인 세계기아, 질병, 아동구호기구로써 활동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부터 캄보디아 감풍고아원에 매달 4백불의 후원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선우(공동대표 남지심 박광서)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해외 난민구호의 등 달기' 운동을 펼쳐 수익금 전액을 이들을 돕는데 쓸 예정이다. 또 우리는 선우는 내전으로 고아가 된 이들을 국내로 초청, 인쇄와 목공기술을 습득시켜 자립화의 길도 열어준다는 방침이다.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회장 김재일)도 저금통 '자비의 돕' 모금운동을 펼쳐 국내결식아동 및 르완다난민구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정토회(지도법사 법륜)도 국제사업부를 통해 인도 · 동남아 등 기아 질병 문맹퇴치를 위한 구호사업을 펴고있다. 〈김중근 기자〉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 부처님 오신날이 꼭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봉축위원회는 5월 한달을 연등축제기간으로 정하고 부처님오신날을 알리는 봉축포스터 6천매를 전국 각 사암과 지역 봉축위에 보급하고 있다.

5월5일 남한산성 걷기대회

본사 · 마음의 전화 '새싹불자를 키우자' 첫 행사

가정의 달,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현대불교신문(발행인 김광삼)은 청소년상담기관 마음의 전화(대표 도각스님)와 공동으로 5월 5일(일요일) 어린이날 '가족과 함께 청소년 남한산성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불교청년회(회장 도각스님)가 주관하고 목이짜몰관(관장 박찬수) 협찬으로 추진되는 이 행사는 전보삼교수(신구전문대, 민해기념관 관장)가 인솔, 현장 강의로 백산 각성스님과 승군의 얼이깃든 호국불교의 성지 남한산성(사적 제 57호)을 순례하며 역사도 배우고 자연환경도 가꾸며 가족사랑도 느끼는 산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현대불교신문이 연중캠페인으로 벌이고 있는 '새싹불자를 키우자'의 첫 야외 행사다.

동참안내 11면

망월동 등불켜기운동

불교인권위, 5월24일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한상범)는 오는 5월24일 오후7시 광주 망월동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민주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한 망월동 등불켜기 운동을 전개한다.

인권위는 정토발원을 통해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이날 행사를 계기로 호국영령 천도를 위한 등불켜기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종교정책시정 요구서

조계종, 국방부에 전달

조계종 총무원은 대정부관련 불교계 현안문제 시정 일환으로 지난 17일 국방부에 '군대내 종교정책시정 요청서'를 전달했다.

총무원은 요청서를 통해 △병역법 · 군인사법등 관련 법령을 개정 군종수의 형평성 유지 △각종학교로 지정된 중앙승가대 졸업자 군종장교인정 △훈련소 입소 기록카드를 근거로 군내 종교시설과 예산책정을 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현대불교신문은 중 · 고교 학생들의 민족정신 고취와 올바른 전통문화 인식을 위해 미술교육의 기초과정인 데생교재로 금동미륵보살반가상(국보 제83호) 석고모형을 전국 중 · 고교에 보급합니다.

중 · 고교에 데생용 미륵반가상을 보냅시다

동참해주신 분

◇설정스님 ◇광우스님
◇법조스님 ◇혜원스님
◇박완일회장 ◇김재웅법사

△설정 조계종종회의장: (5구좌) △광우 조계종비구니회장: (3구좌) △법조 법천사주지: (1구좌) △혜원 길음종합사회복지관장: 동산고 (1구좌) △혜원 한마음선원주지: (3구좌) △원상 은석사주지: 천안고 북일고 (2구좌) △김재웅법사:(3구좌) △박완일회장: (1구좌) △연기영동대교수: (1구좌) △김영숙법사: (1구좌) △이수복: 대곳중 (1구좌) △김연희: (1구좌) △정병천: (1구좌) △서종학:(1구좌) △손갑선: (1구좌) 〈4월 18일 현재 126구좌 접수〉

어떻게 추진되나

◇모형제작: 석고보다 견고한 FRP로 축소제작(원형 높이 93.5㎝를 높이 55㎝ 폭 35㎝로)
◇기술지원: 밀종사 (대표 김철오)
◇보급기간: 1996년 4월부터 12월31일까지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누구나 가능
◇구좌단위로 참여한다(1구좌 10만원).
◇수령학교를 지정할수 있다(지역 학교 · 출신모교 · 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 온라인구좌=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은행입금 후에 반드시 현대불교신문사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팔만대장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기념 한정보급!

팔만대장경을 아십니까?

대장경이란 '부처님의 가르치심'의 총칭으로 경(經), 율(律), 논(論)의 삼장(三藏)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經)은 부처님의 설법이며, 율(律)이란 불교도의 생활규범이며, 논(論)은 경과 율에 대한 조사들의 논문입니다.

대장경은 고려시대에 두 차례에 걸쳐 국가 사업으로 간행되었습니다. 먼저 간행된 구판(舊版) 대장경은 1031년에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거란의 침공을 물리치려는 발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106년까지 무려 팔십육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몽고의 침략에 전주어 그 무렵으로서는 내용이 가장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운(不運)(?)! 부인사(仁)에 봉안된 이 구판 대장경은 조판 104년인 1232년에 몽고군의 방화로 그만 불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오 년 뒤인 1236년에 다시 본격적으로 대장경 간행 불사를 추진하여 1251년에 그 완성을 보게되니, 십육 년에 걸쳐 이 큰 불사의 결실이 바로 지금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고려대장경입니다.
한편 고려대장경은 처음에는 강화도에 보관되었다 해운의 노략질이 심해져서 서울의 지천사(支天寺)로 옮겼다가 그 뒤 조선시대 태조임금 때인 1398년에 해인사로 다시 옮겨 보관된 것입니다.

고려대장경을 흔히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까닭은 대장경의 장경 판수가 팔만여 장에 이르는 데에서 비롯되기도 했을 터이지만, 한편으로는 불교에서 아주 많은 것을 가르킬 때 팔만사천이라는 숫자를 쓰는 등에서도, 가없이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만사천 법문이라고 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진품 복제경판을 보급합니다.

팔만대장경 연구소의 대장경 전산화 작업, 영구보존사업, 대장경 홍보사업은 세계인의 관심과 소명이 모여지야 가능합니다.

A형

B형

■ 가로 69.5cm, 세로 23.9cm로 원본과 같은 크기 입니다.
봉위있는 구양순체에 원판각인상태 그대로의 A형과 금박을 입힌 B형 두가지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경판을 구입하시는 분께는 반야심경원판복각본의 탁본 1매와 보증서를 드립니다.

살아숨쉬는 역사를 소장하십시오

세계문화재 팔만대장경을 소장하시는 분은 품위있고 편안한 만족과 함께 21세기대장경을 만들어가는 차별화된 문화인의 긍지를 느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않는 마음의 뿌대로 삼으십시오

팔만대장경에는 무이앞에서도 꺾이지않은 조상의 고귀한 정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불굴의 호국정신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800년전 선조들의 숨결과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그 정신이 한자 한자 가슴에 아로새겨지는 것을 느낄수 있을 것입니다.

팔만대장경 진품복제경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용 : 반야심경
크기 : 원판의 크기와 동일 (가로 69.5cm, 세로 23.9cm)
재질 : EPOXY
서체 : 구양순체
가격 : ₩200,000
제작 : 고려대장경 연구소
구입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전화) 737-8881, 팩스) 737-0697